

## 내신, 수능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진실

### 에피소드 두 가지

에피소드 1 : 처음 서울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선배 교수 한 분에게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 분 대답이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 잘 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구태여 출석을 부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 분을 따라 한 동안 출석을 부르지 않고 지냈다. (내 강의는 대개 백 명이 훨씬 넘는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어느 때 문득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 후부터는 출석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제 나는 출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 강의실로 들어오는 것까지 강조한다.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지만, 지각하는 사람은 결석으로 처리해 버리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피소드 2 : 몇 년 전 미국의 대학들을 방문하는 중에 Boston 근교에 위치한 Bunker Hill Community College에 들러 그곳의 교수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그 때 한 교수가 자기가 길러낸 제자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들려준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 학생이 처음에는 공부를 못해 2년제 대학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분발해 공부한 결과 궁극적으로는 MIT에서 박사학위까지 땀다는 자랑이었다. 그 교수의 말이 학생들 중에는 ‘late bloomer’(우리말로는 ‘늦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짐)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의 감추어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온힘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 내신, 수능 그리고 코앞에 닥친 대학입시

2008년도 대학입시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신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온 사회가 들끓고 있다. 입시전쟁을 치러야 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런 딱한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내신 상위 40%를 만점으로 처리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고 싸움을 벌이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몹시 무책임해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내년도 입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싸움은 학생선발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대학과 이에 간섭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교육부의 대결구도처럼 보인다. 그 아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든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물론적으로 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기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선발 기준이 전적으로 대학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대학입시제도 변화 과정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잘 안다고 말할 수 있

다. 솔직히 말해 그 논의 과정에서 나는 언제나 소수파에 속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입시제도가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보기에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과욕에서 찾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능성적을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발표해 입시전형 자료로 삼겠다고 욕심을 부린 데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 나왔다. 학생들이 수능성적 1,2점에 목을 매달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는 이상 그 자체는 고매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 사회, 특히 대학사회의 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것이라는 데 그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수능을 등급제로 만든 데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작은 점수차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교수들의 성향으로 보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문이었다. “내가 가르칠 학생을 뽑는 데 대충 뽑는다고? 어렵도 없는 소리지.” 대학교수들이 정부의 주문에 순순히 응할 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였다. 수능 등급제에 대해 ‘감추어진 본고사’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심층논술’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부에 의해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대학입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수능 등급제의 또 다른 감추어진 의도는 내신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자는 데 있었을 것이다. 대학들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내신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다. 내신 상위 40%를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리 뻔뻔하지 못하다는 것은 대학교수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오직 내신을 무력화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무리수라도 둘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연 내신이 신입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그토록 쓸모없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상위 40%를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100명 중 1등과 40등의 학생이 똑같은 자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적절한 평가 방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신에 담겨진 정보가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그토록 가치가 없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신은 수능이나 논술과는 다른 성격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 문제는 대학과 대학교육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무지가 내신을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태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대학교육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다.

##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갖는 총체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자신이 없다. 다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교육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 그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높여주는 기능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경제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의 주요한 기능은 단지 개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데 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걸보기만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그 사람의 능력에 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그 사람의 '학벌'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학교를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선별의 수단'(screening device)으로서 주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우리 대학 경제학부 졸업생을 채용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학 지식의 양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았을까? 그것도 고려대상이 되기는 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거기에다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이 기업을 대신해 기업이 원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정보경제이론의 시각이 약간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을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은 시각이 매우 큰 현실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논의에는 이 정보경제이론의 시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논의가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원하는 자질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 데다가 참을성까지 없는 사람은 기업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머리만 좋은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할 뿐 아니라 참을성도 있는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을 써도 좋다는 신호를 기업으로 보내 줘야 하는 것이다.

에피소드 1에서 내가 깨달은 바 있어 출석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꿨다는 것은 바로 이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점이 좋은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을 쓴다. 학점이 자질에 관한 신호를 보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이 상황에서 대학이 오직 지적 능력만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기업은 오래지 않아 학점을 중시하는 채용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노력과 성실성, 인내심까지 고려 대상으로 삼아 학점을 부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 강의에 나오지 않고서도 시험을 잘 치는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강의를 지루하다고 느껴도 꼬박꼬박 출석할 만큼의 성실성과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출석 상황을 학점에 반영하는 정책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시간에 정확히 맞춰 오는 것까지 강조하기 시작했다. 단지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 성실성과 인내력까지 갖춰야 A학점을 맞을 수 있게 만들어 학점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나의 의도였다.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정보경제이론의 시각이 대학입시 정책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자나 깨나 학력만을 부르짖는 것은 대

학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원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는 동시에 그 자질의 정도를 평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이다. 다음 절에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 내신을 무시해도 좋은가?

내신과 수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 흔히 듣는 한 가지 말이 있다. 어떤 학생이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성적은 형편없는 반면, 내신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어떤 학생이 수능성적은 전국 상위 몇 %에 들 정도로 좋은 것처럼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렇게 내신과 수능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이 좀더 정확한 학력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내신성적이 갖는 의미를 상당히 깎아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이다.

요즈음 신문을 펼쳐보면 온갖 자료를 동원해 ‘내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신과 수능을 비교한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내신의 변별력이 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결론으로 끝나고 있다. 나는 그 ‘변별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른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생각에서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내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학력의 척도라는 뜻에서 변별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나는 학력의 척도로서 왜 내신성적이 그와 같은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평가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사리 무시해 버려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 수능성적이 내신성적보다 더 우월한 학력의 척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는 전혀 찬동할 수 없다. 내신에는 바람직한 신입생을 뽑는 일에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어떤 개인의 지적인 능력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지식만 많아도 안 된다는 말이다. 말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버텨내는 인내심도 머리카락 지식 못지않게 바람직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머리와 지식만으로 말은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것이 사실이다.

내신과 수능이 과연 이와 같은 자질들의 어떤 측면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생각해 보자.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능이 머리카락 지식 쪽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편 내신은 성실성이나 인내심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과연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는 일이다. 출석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열심히 따라서 공부해 보았자 학력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신은 바람직한 신입생을 뽑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껍부리지 않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며, 수능과 관련 없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높은 내신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비뚤어진 학교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똥똥하지 못하고 뭔가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

다. 수능과 관계없는 과목은 과감하게 제껴 버리고 수업 중에 줄기를 밥 먹듯 하면서 높은 수능점수를 받는 학생을 스타로 대접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어떤 사람의 자질에 대해 내신과 수능은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이 모든 정보들을 소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수능성적이 주는 정보만이 쓸모 있고 내신성적이 주는 정보는 쓸모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가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낳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사회가 원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교육하고 각자의 자질을 평가해 그 정보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대학의 주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결코 내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가 크다?

내신 무력화의 또 다른 근거는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나 역시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구태여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설사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야 할 충분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A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적 학력이 B지역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더 높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학력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애당초 A지역에는 머리 좋은 학생들만 살고 있는 한편 B지역에는 머리 나쁜 학생들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발생한 것일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A지역 학생의 평균적 노력 수준이 B지역보다 더 높아서 그런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B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낮은 학력이 그의 개인적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낮은 학력의 책임 소재를 찾는다면 가족배경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대학 입시에 중점을 두는지 등에 따라 학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주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만 하는 현재의 구도하에서 평균적 학력이 낮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만약 누구든 전국의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해 진학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를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평균적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특목고의 경우에는 현행의 내신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은 이미 내신의 불이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불공정한 일이 된다.

앞으로 특목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특목고 우대는 사회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일념에서 공정성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욕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나 역시 똑똑한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음을 감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들이 현행 제도하에서 그 욕심을 맘껏 채울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제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내신 상위 40%에게 만점을 주겠다는 대학의 태도는 몽니를 부리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서울대학교도 별로 다를 바 없다. 과거에도 내신 상위 10%에 만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1,2등급 모두에게 만점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용색하기 짝이 없이 들린다.

대학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당당히 지적하고 이것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이를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역시 현행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정부에 대해 일정한 시한을 제시하고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떳떳한 자세로 나왔다면 오죽 좋았을까. 지성의 보루라고 할 대학이 정도를 견지 못하고 유치한 대응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척 딱해 보인다. 그런 유치한 대응이 고등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거나 했느냐고 묻고 싶다.

이 점과 관련해 앞에서 말한 Bunker Hill Community College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비록 수능점수는 낮을지라도 잠재적 능력에서는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행의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그런 감추어진 인재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영어, 수학을 잘 못하지만 머리만은 남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그 잠재력 능력이 화사하게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보람 아닐까? 수능점수 몇 점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참다운 교육과 거리가 멀다.

## 면 앞날을 내다보자

지금 우리의 교육이 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는 것도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서글픈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참을성을 갖고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피폐해진 공교육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 우리의 대학들은 한 가지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입시제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오해가 바로 그것인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이런 착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어댄다'(tail wags the dog)는 말이 있다. 대학입시 하나만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생각은 꼬리가 개를 흔들려고 하는 것만큼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공교육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대학입시라는 꼬리 하나만으로 흔들어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입시정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꾸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급신거리며 그것에 따라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공교육의 정상화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이상의 광범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대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지금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내신 상위 40%에 만점을 몰아주는 것이 정말로 실천에 옮겨진 다음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짐작해 보자. 고등학생들이 예전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능과 관련이 없는 과목의 수업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는 것은 더더구나 상상하기 어렵다. 적당히 해서 상위 40%에만 들면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될 것임은 누누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대학들에게 그와 같은 내신 무력화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성원하고 격려해 주어도 모자란 관에 그들의 자존심을 그토록 무참하게 꺾어 버리면 과연 누가 공교육 정상화의 무거운 짐을 선뜻 떠안으려고 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 없는 행동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되어야 자식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보게 될 수 있을까?

2008년의 대학입시가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될 수 없다. 대학이 양보하든 정부가 양보하든 하루 빨리 결론을 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과연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먼 훗날 역사가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일단 급한 불을 끈 다음, 공교육 정상화라는 지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매년 입시철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게 만들려면 긴 안목에서 백년을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찾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